

인사말씀

이번에 “체코 디자인 100년의 여행” 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중심에 자리잡아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교차로였던 체코. 루돌프 2세가 찬란한 예술문화의 꽃을 피웠던 고도 프라하를 중심으로 20세기에는 잇달아 예술운동이 전개되었고, 건축과 인테리어 분야까지 파급된 체코 큐비즘이라는 독특한 예술양식도 태어났습니다. 또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체코에서는 탁월한 기술을 자랑하는 보헤미아 유리공예를 비롯한 산업이 발달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체코의 예술가 중에서는 아르누보의 기수 알폰스 뤼샤(체코어 발음으로는 알폰스 무하)가 압도적인 지명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1989년의 벨벳 혁명 이후에는 ‘황금의 프라하’가 많은 관광객을 사로잡으면서 체코 문화가 해외에 소개되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일본에서도 1999년에 세타가야 미술관에서 “찬란한 프라하 — 19세기 말부터 아르데코까지” 전이 개최되었고, 2002년에는 가나가와현립 근대미술관에서 “차페크 형제와 체코 아방가르드전”, 2014년에는 교토 국립 근대미술관에서 “체코 영화 포스터전”이 개최되었습니다. 도야마현 미술관의 국제공모전 “세계 포스터 트리엔날레 도야마”에서는 체코를 비롯한 중부 유럽의 포스터가 주목을 받았고, 또한 2005년에 개최된 아이치 엑스포에서는 전통 보헤미아 유리공예의 전시와 함께 현대 작가의 설치미술도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체코의 조형예술이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 전람회에서는 체코 국립 프라하 공예미술관의 수장품을 중심으로 뤼샤에서부터 현대의 디자이너에 이르기까지 체코 디자인 100년을 대표하는 가구, 식기, 책 장정, 포스터는 물론 장난감, 애니메이션 원화까지 포함해 약 250점을 전시합니다. 폭넓은 매력을 자랑하는 체코의 문화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전람회의 개최를 위해 귀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체코 국립 프라하 공예미술관을 비롯한 소장가 여러분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치자

메시지

체코 공화국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그 크기는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섬들 중 하나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역사는 중세 초기에 시작되었고, 언어와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야 했지만, 그와 동시에 체코는 언제나 서구 문화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왔습니다. 유럽의 20세기는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면에서도 거대한 전환기였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이 붕괴된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8년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까지의 20년 동안 먼저 경제가 발전했고, 그 뒤를 이어 문화도 발전하여 ‘체코슬로바키아제’라는 브랜드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1945년 이후 약화되었고, 1948년에는 소련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체주의 사회로 바뀌는 바람에 강제적으로 소련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권 아래로 편입된 시절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1989년에 일어난 벨벳 혁명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벨벳 혁명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 국민은 1992년에 분리를 결정했으며, 양국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EU와 NATO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 깊은 미술관과 공예미술관 등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기관의 활동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프라하 공예미술관도 그 일례이며, 오늘날에는 응용미술과 디자인의 미술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하 공예미술관은 1885년에 설립된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풍부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체코 민족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근 30년 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전람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세계 각지의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는 다른 문화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착상을 얻고 있습니다. 프라하 공예미술관은 일본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아르누보 시기의 전람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시기의 유리공예와 포스터가 일본의 미술에서 착상을 얻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래에는 “보헤미아 유리공예 - 찬란한 정과 동” 전이라는 이름으로 유리공예의 탁월한 컬렉션을 갖추고 산토리 미술관, 아이치현 도자미술관, 고베 시립박물관을 순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와 같이 체코의 디자인이 체코 국외에서 시대에 따라 이처럼 대규모로 전시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20세기 체코의 역사와 그 컬렉션을 일본에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람회를 개최해 주시는 모든 미술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체코 센터 도쿄 및 I.D.F.Inc.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체코의 예술을 일본에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기획입니다. 작가 및 프라하 공예미술관 운영진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체코 국립 프라하 공예미술관 관장
헬레나 퀴니크스마르코바